

## 학업성취도 공정성 문제 많다

###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 학교별 시험관리 '부풀리기' 유행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발표 이후 시험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험관리에서부터 감독, 채점까지 해당 학교 교사가 직접 하다 보니 학교마다 성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계에선 내신 미반영에 따른 학생들의 무성의한 시험 태도 등으로 시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나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평가방식이 지속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교육청

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학력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채점을 개별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지역별 공정을 앞두고 '공정한 시험이 이뤄졌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 문항 가운데에는 수작업 채점으로 이뤄진 주관식 문항들이 상

당수 포함돼 있고, 객관식도 광주를 비롯한 전국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작성한 답을 교사들이 '엑셀 프로그램'에 다시 써넣은 뒤 점수를 집계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사실상 동일 지역 내의 평가결과가 제각각으로 나온 것도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평가에서 전 과목 최하위란 불명예를 안은 곡성의 경우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이 비슷한 인근 구례와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최대 34.4%p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도 이러한 의문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가.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관계자도

"표본조사만 한다고 했다기 전수조사를 하고 시험감독, 채점까지 일선 학교에 맡기는 형태에서 공정한 평가가 나오기는 사실상 무리일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열 경쟁과 공정성 등에 대한 비난이 일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일부 교육청은 벌써 과열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를 사랑한 김수환 추기경

### "가장 가슴 아픈 일 광주의 비극... 함께 싸우지 못해 괴로웠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광주의 비극입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주에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 싸웠더라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광주를 사랑했다. 살아생전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광주의 비극'이라고 회고했다. 김 추기경은 진정으로 광주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했으며, 진실을 알리는 데에는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김 추기경은 광주에 있었다. 윤공회 대주교를 만나 광주의 진실을 알고자 직접 내려왔다. 하지만 신군부에 막혀 윤 대주교를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난 16일 명동성당에서 김 추기경 시신이 유리관에 안치된 가운데 장례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5·18 당시 광주 내려와 전두환에 구명 운동도

5·18 당시 광주대학교 사목교장을 맡았던 이영수 신부는 "광주항쟁 당시 김 추기경님은 광주에 계셨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당시 윤 대주교를 만나지 못해 5·18 직후 다시 광주를 찾았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에서 광주대학교 신부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한다.

또 광주항쟁 직후 광주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살세시여고 강당에서 특별 강연도 가졌다.

광주항쟁의 진실을 김 추기경에 전하기 위해 1980년 5월26일 광주를 탈출해 명동성당에 갔던 김성용 신부는 "광주의 소식을 듣고 추기경님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추기경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응, 재야논객 천관우씨 등과 함께 광주항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항쟁에 가담한 사형수들의

구명 운동도 펼쳤다. 1984년 5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광주를 찾아, 무등경기장에서 수만명의 신자들과 광주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열어 광주의 아픔에 동참했다.

1996년 2월에는 망월동 5·18묘역을 방문해 광주의 상처와 아픔을 몸소 슬어안았다.

참배 후 김 추기경은 "5월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착잡하다.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5·18은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으로 중대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 평화방송 사장인 장용주 신부는 "추기경님은 광주의 상처를 가슴 아파 하셨다. 자주 유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안아줬다"며 "그 아픔이 한국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한 복판에 서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순천·무안 등 전남 간척지 7곳 다시 갯벌로 만든다

## 도청별관 철거 '반쪽 합의'

### 내년부터 逆간척 사업

순천과 무안 등 전남 일부 지역 간척지 또는 폐염전·폐 양식장을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역(逆) 간척'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지역주민·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복원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조사 결과와 국내외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국토해양부는 시범 대상지 3~4곳을 오는 4월께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역 간척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15개 시·군에서 81개소 약 32km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복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남이 7개 시·군 42개소로 면적만 22km에 달하는 등 전체 갯벌 복원 희망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도군 10곳 ▲무안군 8곳 ▲순천시 4곳 ▲진도군 2곳과 목포시와 고흥군이 1곳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가운데 무안 현경면·순천 별량면·고흥 풍양면·신안 화도·완도 군외면·진도 소포리·목포 남항 앞바다 등 전남지역 7개소를 포함한 총 17개 지역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족·부상자회 농성 계속 추진단 민·형사 소송 검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철거반대 농성을 벌여온 5·18 단체들 중 구속부상자회가 17일 별관철거에 합의, 농성을 풀고 철수한 반면 유족회와 부상자회 회원들은 철거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키로 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재개는 당분간 불가해졌으며 이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은 유족회 등의 농성으로 발생하는 공사지체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확대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옛도청 사수'를 주장하며 사실상 농성을 주도해온 5·18 구속부상자회는 17일 옛 도청 별관

앞에서 '원형보존 공동대책위'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훈 추진단장, 최철 문화수도조성위원장, 민주당 박주선의원(광주 동구)과 별관 철거에 동의하는 내용의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 재개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의 진실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현장을 별관 보존을 위해 현장(별관)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며 별관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구속부상자회 등이 '별관철거, 문화전당 공사 재개'에 합의한 것을 비난하면서 "우리와 대화나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시민단체, 5·18 기념재단, 시민추진단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별관철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교원 인사 명단 인터넷 광주일보에  
www.kwangju.co.kr ▶ 관련기사 7면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에게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제약품은 오늘도 생명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yujen.com>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콜레스테롤, 혈관·신장, 당뇨·지방질 체중·노년기  
- 동맥 경화증·고혈압, 미연령  
- 당뇨, 고지혈증 예방·개선·치료효과, 주근깨·연령, 피부유형·비율형 개선  
- 암·뇌졸중·심장·신경·신장·다양·중성지방·혈액·비타민·비타민  
- 유산소·수용성

아연의 보급  
\*서울특별시서초구대동동 240-10101 (02)531-1000